

투데이 칼럼

북한 대북전단 '보복' 위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방역승리를 선언했다.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 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현실 앞에 솔직히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국가 위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털어놓았다. 최대비상방역체계 돌입 91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9일부터 새로 발생한 발원지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5월 12일부터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정상방역체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더욱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이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고열을 앓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과 리더십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측에서 보낸 전단을 통해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남 보복을 위협했다. 대북전단이 코로나 유입의 원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아주 강력한 보복을 대응을 가해야"한다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김 부부장은 8월 10



정복규 논설위원

일 열린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회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풍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것들이 뼈아픈 (대북전단)와 화해,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물건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남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물체를 통해서도 악성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물체 표면 소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공인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또 "적들이 위협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

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꽤다른 물건'을 운운하면서 대북전단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지목했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발언으로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걸 공식화한 셈이 됐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지목하며 보복을 공언한 것은 외부에 적대 세력을 설정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 연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 속에 심히 앓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최고지도자도 고통 받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보복을 거론한 만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이

경계선을 넘을 경우 북한군의 조준사격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더욱 수위 높은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북한이 지난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를 대신할 '제비사직'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적이 있다. 이 노동당 제비사직에 김여정 부부장을 거론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강렬한 연설이었다. 한편 남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3월 30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측에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사설

익산 출신 항공부품 김영기

경남 창원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성산업은 전자·방산·항공·자동차 부품 선도 기업이다. 이 회사 김영기 대표(69)는 익산에서 초등학교 뿐 아니라 남성중, 고를 다닌 익산 토박이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기업을 일군 독보적인 기업인이다. 이 성산업은 1980년 설립과 동시에 LG전자, LG산전 등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했다. 그 뒤 확고한 이성산업만의 기술력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꾸준한 성장 비결은 한 눈 팔지 않고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다지며 자체 브랜드 개발에 전력투구한 때문이다. 이를 통해 탄생한 브랜드 '가스피어'는 가정과 사무실 사용은 물론 휴대가 가능하다. 다양한 사이즈의 가스피어, 가스피어 등 조리 기구부터 난방 기구까지 여러 품목으로 출시되고 있다.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레스 성형, SPOT 용접, 출하, 포장, 컨베이어

라인 조립 등 일련의 과정에 현대화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방산부품인 미사일 및 탄약 부품의 기술력을 통해 동종업종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도 참여하여 운전석 에어백의 내장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다. 에어백은 정밀하고 탁월한 품질이 요구된다. 그래서 금형 제작부터 자체 기술로 안정성과 품질을 이끌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12월 일지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쓴 이성산업 등 경남 도내 5개사를 2021 일지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김영기 대표는 '최고의 홍보는 만족한 소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뛰어난 신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발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여야 동시 발의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안을 국민 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각각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 발전축을 5개 광역권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 뒤 전라북도는 호남권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예측화가 더욱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제주에 이어 강원까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면서 독자 권역의 기틀을 만들었다. 유일하게 전북만 소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정당이 다른 두 의원이 이례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의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동시에 각각 발의한 건 여야의 지원을

함께 받아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공동 전략이다. 민주당 법안은 아예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 위원장까지 공동발의자에 포함시켰다.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앞서 안호영 의원이 낸 법안까지 모두 3개다. 전북 정치권은 일단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번 2개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개정안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호남권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년 홀대를 받아왔다. 특히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되어 왔다. 여야 협치로 법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고문

풍요로운 추석!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선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의미 있는 선물을 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시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0%, 비주택화재는 74%를 차지한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택화재가 62%에 달한다. 그래서 소방청은 2017년부터 주

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총별, 구획된 실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의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장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 군민의 소방시설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중요한 소방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소방시설 때문에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물 배포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군민들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 친인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안전을 선물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안전에 관심을 담아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길 소망한다. 김동명 / 진안소방서방호구조과 소방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